

# 남원에 240억 '스마트팜 창업단지'

### 대산면 수덕리 일원 2026년 완공...스마트팜 창업·취업 지원 국내 최초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발판...성장산업 육성

남원시가 최근 정부의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에 선정돼 미래 농생명 산업 시대를 선도할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다.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은 대규모 집적화된 스마트팜 창업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취업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 남원시는 서면 및 대면평가를 거쳐 전국 16개 지자체 중 2개 선정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도내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으며, 국비 24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남원시는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농생명 산업지구와 연계한 '소각장 폐열 활용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기까지 남원시의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철저한 준비가 큰 힘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면평가에 직접 발표자로 나서 남원의 스마트팜 생태계 구축 노력과 향후 비전 등을 논리적이면서도 열정적으로 소개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등 사업 추진의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번 사업은 2026년까지 사업비 240억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해 대산면 수덕리 일원 16.1ha에 스마트팜 창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부지 매입과 기반을 조성한 후 농업법인이 민간투자 등을 활용하여 농어촌공사가 조성한 사업부지를 매입, 대규모 스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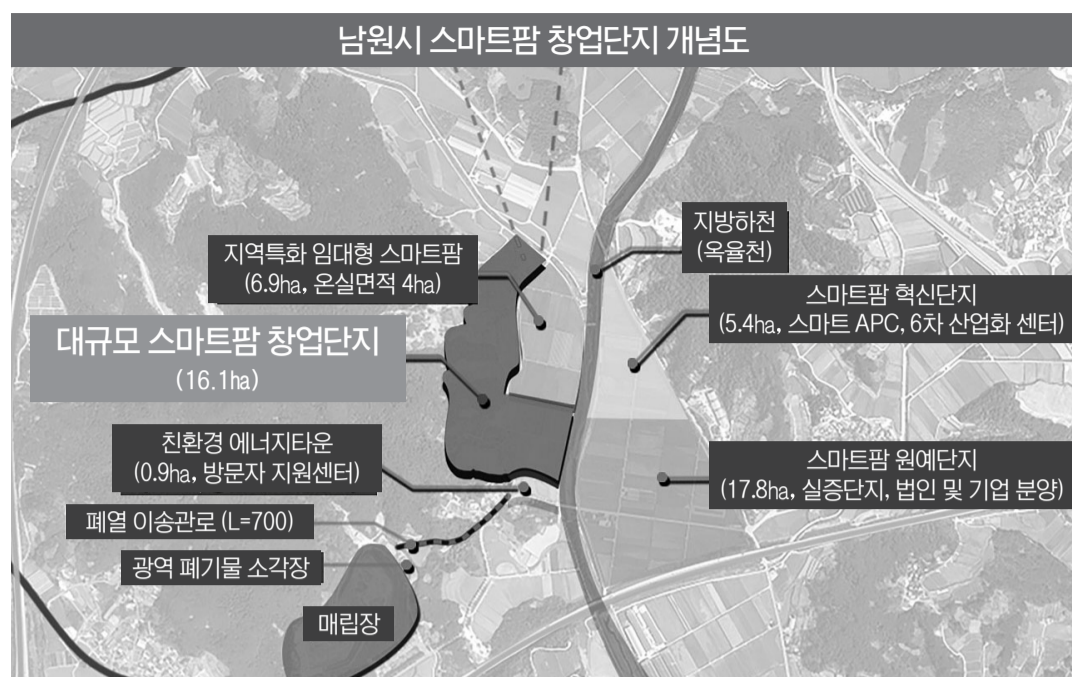
농업단지를 복합개발하고 15% 부지를 남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시는 본 사업과 연계하여 스마트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연말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산업 지구 지정을 받아 규제완화 및 세제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해당 지구 내 스마트팜 임대경영(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가공·유통(스마트팜 혁신단지), 실증(스마트 원예단지), 주거(농촌보급자리), 정주여건(농촌협약) 등을 집적화하고, 정주여건을 종합패키지 지원하여 청년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스마트팜 확산모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로부터 농생명산업 지구를 지정 받게 되면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와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본 단지에 취업 시 체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 외국인 유학생이 남원에서 교육받고 취업하여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공모 선정은 남원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시의 강한 의지로 이뤄낸 큰 성과이다"면서 "대규모 스마



남원시 스마트팜 창업단지 개념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6.9ha, 온실면적 4ha)

지방하천 (옥을천)

스마트팜 혁신단지 (5.4ha, 스마트 APC, 6차 산업화 센터)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16.1ha)

스마트팜 원예단지 (17.8ha, 실증단지, 법인 및 기업 분양)

친환경 에너지타운 (0.9ha, 방문자 지원센터)

스마트팜 원예단지 (17.8ha, 실증단지, 법인 및 기업 분양)

페열 이송관로 (L=700)

광역 폐기물 소각장

매립장

##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 '순항'

### 추진상황보고회...진행상황 공유 남원시-협의회-전북대 협력 다짐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지자체·대학·의회가 손을 맞잡았다.

남원시·전북대·남원시의회는 지난 22일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남원시장·전북대 총장·남원시의회 의장·전북대 지역발전연구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남원시와 전북대학교가 협력·추진 중인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에 대한 기관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설립 부지 현지 확인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남원시와 전북대학교간 상호협력사항에 대한 논의 등 추진사항 이행 점검 및 성공적인 캠퍼스 설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다짐했다.

남원시와 전북대는 이번 보고회를 토대로 앞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남원시와 전북대는 '전북대 글로벌대학 30' 최종 선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



남원시·전북대·남원시의회는 지난 22일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남원시 제공>

학 설립을 확정짓고, 올해 3월 폐교된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부지매입을 완료하면서 글로벌대학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에 시는 국유재산과 부지교환 및 캠퍼스내 미준공 방치건축물 철거·수목환경정비, 가로등 정비·도로 아스콘 포장 공사 등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가고 있다.

또한 대학 측에서는 건축물 리모델링을 위한 정밀구조안전진단과 캠퍼스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

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학부운영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이후 2025년에서 2026년까지 리모델링을 완료, 교육환경평가 추진을 거쳐 2027년에 교육부로부터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는 오는 8월 28일에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추진과 연계해서 전북대 남원발전연구원(전북대 지역발전연구원 산하 연구소)를 남원시 죽향동에 신축 중인 이음센터에 개소할 계획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남원시, 주민등록지 실거주 조사

### 11월 18일까지

남원시는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 18일까지 실시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

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모바일)를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실거주 여부의 파악이 중요한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며,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한 경우 공무원의 개별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수정하게 된다.

조사 기간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이 지연된 경우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여름휴가는 고창으로 GO GO~

### 해수욕장 고운 모래밭·해송림 캠핑장에서 감상하는 노을 황홀 시원한 계곡·사찰 체험 등 재미 가득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세계유산도시' 고창은 자연과 문화,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힐링여행지로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해수욕장  
드넓은 명사십리가 펼쳐진 고창의 바다에는 2곳의 해수욕장(구시포, 동호)이 저마다 고운 백사장과 수백그루 해송림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고창의 바다는 염도가 높아 해수욕에도 안심맞춤이다. 이에 더해 백사장의 게나 조개를 잡는 소소한 재미도 있다.

▲캠핑장  
자연에서 여유롭게 보내는 캠핑은 여름 여행의 낭만을 더해준다.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의 안락한 해송림에서 명사십리의 탁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황홀한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선운산국민여가캠핑장과 북분자연원의 캠핑장은 푸르른 산을 끼고 있어 맑은 공기를 느끼며 조용하고 여유로운 캠핑을 즐길 수 있다. 고창갯벌오토캠핑장은 고창갯벌을 끼고 다양한 시설과 체험활동이 준비되어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계곡  
고창군 고수면 신기계곡은 키가 큰 나무가 많아 선선한 그늘을 제공하고 맑고 시원한 물이 흘러 더위를 피해 휴식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물이 깊지 않고, 유속이 빠르지 않아 걱정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지저귀는 새와 흐르는 물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소리를 듣고있



구시포 해수욕장.

자연 진정한 힐링이라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이색체험  
천년고찰 선운사의 사찰은 고즈넉한 심을 허락한다. 무더운 여름 물놀이가 아닌,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템플스테이를 경험하는 것도 색다른 휴식이 될 것이다. 해발고도 640m 방장산 활공장에서 펼쳐지는 패러글라이딩과 선운산 일원의 나무와 암벽을 오를 수 있는 클라이밍도 특별한 경험이다. 하늘을 날고 암벽을 오르면서 느껴지는 짜릿함은 무더위를 순식간에 날려버릴 것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Sky is unlimited

취업성공!  
탁월한 선택!

항공 특성화 대학  
초당대학교

www.cdu.ac.kr

항공운항학과

- 항공운항학과
- 항공정비학과
- 항공모빌리티학과
- 항공관광서비스학과

간호학과

- 간호학과
- 치위생학과

항공이엔지니어링

- 스포츠경영지도학과
- 뷰티디자인학과
- 호텔조리베이커리학과
- 군사학과
- 사회복지상담학과
- 소방행정학과
- 의약관리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 글로벌비즈니스학과
- 글로벌신재생에너지학과
- 글로벌실버케어학과
- 글로벌조선학과
- 글로벌화학기공학과
- 국제학과

초당대학교